**교제와 나눔**

**ㆍ온라인예배:** 당분간 계속됩니다. 속히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ㆍ말씀편지:**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

**ㆍ어린이주일예배:** 다음 주일, 설교-이영환 전도사, 예배위원-어린이들

**ㆍ교회창립기념주일 및 어버이주일:** 5월10일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감사인사:** 지역의 외국인교회 지원을 위한 선교비를 담당자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광열 목사님께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다고 감사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ㆍ감사:** 한국의 연동교회 안동혁 집사님께서 면역력 증진에 좋은 한방차를 보내주셔서, 70세 이상 교회 어르신들께 나누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전달해 주신, Bonn에 계신 정희경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ㆍ생일:** 신영일, 박유라, 신상희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겔44:1-31 월/겔45:1-17 화/겔45:18-46:24 수/겔47:1-12

목/겔47:13-48:35 금/시편1:1-6 토/시2:1-12 일/시3:1-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4월 26일** | **5월 3일** | **5월 10일** | **5월 17일** |
| **예배기도** | 조선형 | 손하음 | 김한진 | 민명희 |
| **말씀일기** | 백윤정 | 민지음 | 송인선 | 석호선 |
| **안내위원** |  | |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 |
| **애찬봉사** |  |  |  |  |

**37-17호 2020년 4월 26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가 정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시143:1,6,8 | | 찬송/Gemeindelied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79번 | | 찬송/Gemeindelied 66장 다 감사드리세 | | 기도/Gebet 조선형 집사  말씀일기/Bibeltagebuch 백윤정 집사  찬양/Chor ‘주 날개 밑’ 찬양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에스겔 44:1-31** | | 설교/Predigt **’그 영광 위하여’**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  찬송/Gemeindelied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봉헌/Kollekte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 | 광고/bekantmachung  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축복/Segen 손교훈 목사  **\*\*교회 구좌**  Baek, Han-Jin Kim  Bank: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  IBAN: DE29 3007 0024 0598 1931 00  BIC: DEUTDEDBDUE | |  |  |

**<설교>**

**그 영광 위하여**(겔44:1-31)

에스겔 44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안내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에스겔이 어떻게 선포해야 할 지를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격(15-16절),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들(17-27절), 제사장에게 허락된 몫(급여)(28-31절)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인제사장 시대에, 성도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성막시절이나 솔로몬 성전때보다 성전 규율이 더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신 **성전 동쪽 문을 하나님의 거룩한 문으로 지정하고 닫아 두라**고 명하시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신, 기억장치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크고, 하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거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시고, 자기 백성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온 몸으로** 배우고 있지요. **문제가 많고 오염의 확률이 높으면, 그만큼 제한도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 NRW 지역도 내일 월요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지요. 대중교통 및 상점 이용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염질병으로 인해 더럽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에스겔 44장을 **시로 쓰면,** **시24:3-4**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으로** 가 봅시다. 성전에는 영광이 가득하고,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4),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목하여, 성전에 관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그리고,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을 향해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고 선포할 것을 명하십니다(5-6). 여기에 등장하는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본 장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제대로 **선포하려면 먼저 ’전심으로’ 듣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는 **전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 중의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음과 몸에 할례”(7)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9). 육체의 할례만 아니라 마음까지 받아야 하니, 오직 하나님의 전은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하16:9**,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전심으로’의 **또 다른 표현**은 **신6:4-5**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마디로 ‘전심으로’ 입니다.

**‘전심으로’ 라는 채로 걸러 내니, 성소의 직분을 준수하는 제사장도 이제는 사독 자손들만 가능하게** 됩니다(15). 사독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좌를 계승할 때 솔로몬에게 충성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비아달 대신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왕상 1:5-8). “악하고 게으른 종”(마25:26)은 있던 직분마저 빼앗기게 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마25:21)은 더 많은 것으로 섬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독의 후예들**은 이제 안뜰로 들어가 제단에서 기름과 피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하여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차별대우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되고, 큰 일을 맡은 자는 책임도 더 크다는 일반적인 원리이며,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권력의 지형이 바뀌어도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신실하게 섬긴 이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천국 경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뭔가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독의 후예들이 시간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는 소위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섬기기는 쉽지만, 꾸준히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내 당대에 평생을 잘 섬기기도 쉽지 않지만, 대를 이어 잘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전심으로! 나도 자녀들도 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전심으로’ 제사하려니,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먼저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27). **‘전심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내 기업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곧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28). **성도들은** 각종 처음 것들을 제사장에게, 즉 ‘전심으로’ 교회 앞,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늘의 복이 가정에 임합니다(30).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꼭 죽어서만 받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늘의 상은 **지금 여기 섬김의 삶에서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를 섬길 수 있음이 복이요, 주께 피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시73:25-28**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최고의 상을 벌써부터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마13:46)들인 사람과 같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던져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그 사람, 주께서 더 가까이 하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약4:8-10 함께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 주님,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옛날 에스겔이 꿈꾸던 영광의 성전,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낡은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